

신문 유료부수 감소세 지속, 작년보다 0.36% ↓

ABC협회, 2014년 신문부수공사 결과 발표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던 신문 판매 축소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ABC협회(회장 이성준)가 공개한 ‘2014년 부수 인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일간지 24개사의 발행부수는 516만 5,810부, 유료부수 391만 9,227부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부수 1위는 167만 3,049부를 기록한 조선일보, 뒤를 이어 중앙일보 105만 6,946부, 동아일보 91만 6,546부 순으로 조사됐다. 유료부수는 조선일보 129만 4,931부, 중앙일보 79만 5,209부, 동아일보 73만 7,053부이다.

ABC협회는 일간신문 발행부수는 해마다 크게 줄고 있으나, 유료부수는 감소세가 줄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일간지 총 발행부수는 991만 1,138부로, 2011년 발행부수 1,278만 5,518부보다 5년간 22.5%(287만 4,380부) 감소했다. 그에 비해 유료부수는 2015년 711만 4,594부로, 2011년도 789만 2,541부보다 9.8%(77만 7,947부) 감소해 발행부수보다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도 일간신문의 경우 유료부수가 711만 4,594부로 2014년도 유료부수 714만 7,856부에서 3만 3,262부(0.5%)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됐다. 반면 스포츠지는 2015년도에 유료부수 63만 786부로 2014년도 70만 7,611부보다 10.9%(7만 6,825부) 크

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양승목 교수(전 한국언론학회 회장)는 “한국 ABC협회가 인증한 2015년 일간신문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를 이전 발표 자료와 비교해 보면, 전국지와 지방지 가릴 것 없이 유료부수 감소현상이 완화됐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발행부수는 전년도(2014년)보다 5.0% 이상 감소해,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의 비율은 거의 80%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료부수의 감소폭 완화는 그동안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에 의해 급속히 진행되어 왔던 신문판매 시장의 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 증가는 신문사의 판매 전략이 허수가 많았던 발행부수 중심에서 유료부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고, 조사 관련해서 ABC협회는 “인쇄상황, 발송상황, 원재료 입고,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증과 전표, 세금계산서, 계정별 원장, 결산서 등 자료를 확인 조사했으며, 지사지국은 독자명부, 금융결제원 지로데이터, 통장, 확장내역 등 수금내역과 독자자료를 정밀 검사했다”고 전했다. **KAA**

김다혜 기자 dahye@kaa.or.kr

〈표〉 주요 일간지 부수 공사 결과

매체명	2014 공사결과		매체명	2014 공사결과	
	발행부수	유료부수		발행부수	발행부수
조선일보	1,673,049	1,294,931	서울경제	81,725	54,977
중앙일보	1,056,946	795,209	머니투데이	75,276	57,494
동아일보	916,546	737,053	아시아경제	35,000	26,016
매일경제	725,701	553,823	이데일리	30,194	15,025
한국경제	505,263	350,952	스포츠조선	219,531	178,409
한국일보	199,613	141,375	일간스포츠	190,774	135,629
국민일보	201,322	141,648	스포츠동아	169,744	136,266
한겨레	244,830	198,931	영남일보	71,796	47,826
문화일보	170,460	149,401	전자신문	62,359	50,148
서울신문	161,131	110,217	헤럴드경제	56,988	40,898